

- 주요 뉴스: 미국 7월 근원 소비자물가, 전월비 상승 예상. 금리인하 기대 영향 등을 주목
 - 연준 보우먼 부의장, 연내 3회 금리인하 지지. 고용 악화 대비한 선제적 대응 필요
 - 중국 7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예상치 상회. 디플레이션 우려는 여전
 -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 러시아에 대한 영토 양보는 절대 불가
- 국제금융시장(주간): 미국은 9월 금리인하 가능성 증가 등으로 위험자산 선호 강화
 - 주가 상승[+2.4%], 달러화 약세[-1.0%], 금리 상승[+7bp]
 - 추가: 미국 S&P500지수는 골디락스 기대, Apple 등의 기술주 강세 등으로 상승
유로 Stoxx600지수는 미국 증시 영향, 러-우 휴전 가능성 등으로 2.1% 상승
 - 환율: 달러화지수는 연준의 9월 금리인하 전망 강화 등이 원인
유로화 가치는 0.5% 상승, 엔화 가치는 0.2% 하락
 - 금리: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일부 장기물 입찰 수요 부진 등이 배정
독일은 미국 국채시장 영향 등으로 1bp 상승

※ 원/달러 환율(주간) 0.1% 하락, 한국 CDS 하락

주요지수					주요지수				
		8/8일	8/1일	전주말대비			8/8일	8/1일	전주말대비
주가	미국	6,389.5	6,238.0	+2.43%	국채금리 10y	미국	4.28%	4.22%	+7bp
	유럽	547.08	535.79	+2.11%		독일	2.69%	2.68%	+1bp
	중국	3,635.1	3,560.0	+2.11%		영국	4.60%	4.53%	+7bp
	일본	41,820	40,800	+2.50%	CDS 5y	한국	22bp	24bp	-2bp
	한국	3,210.0	3,119.4	+2.90%		중국	45bp	45bp	-0bp
환율	달러지수	98.18	99.14	-0.97%	위험지표	EMBI+	344	365	-21bp
	유로화	1.1641	1.1587	+0.47%		VIX	15.15	20.38	-25.66%
	엔화	147.74	147.40	-0.23%		WTI유	63.88	67.33	-5.12%
	위안화	7.1802	7.1933	+0.18%	원자재	구리	447.2	443.6	+0.81%
	원화	1,387.5	1,388.3	+0.06%		금	3,397.8	3,363.5	+1.02%

주: 주가는 미국 S&P 500, 유럽 Stoxx 600, 중국 상해종합, 일본 닛케이225, 한국 Kospi.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는 절상, 절하). 자료: 블룸버그

금일의 포커스

■ 미국 7월 근원 소비자물가, 전월비 상승 예상. 금리인하 기대 영향 등을 주목

- 8/12일에 7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발표될 예정이며, 이에 따른 금리인하 기대 변화 가능성 등에 관심이 집중될 전망. 시장에서는 7월 명목 CPI의 연간 상승률이 2.8%로 전월(2.7%) 대비 높은 수준 기록하고, 월간 상승률은 0.2%로 전월(0.3%) 대비 오름세 둔화될 것으로 예상. 근원 CPI 상승률은 3.0%, 0.3%를 나타내 전월(각각 2.9%, 0.2%) 대비 모두 높은 수준 기록할 것으로 관측
- 연준이 물가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근원 CPI가 7월에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나, 이는 중고차 등 그 동안 오름폭이 크지 않았던 품목의 가격 상승 때문이며,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 영향은 아직 제한적일 것으로 추정. 다만 다수의 경제학자들은 관세의 인플레이션 영향이 지속될 것으로 분석
- 이러한 내용이 정확하다면, 관세가 당장 물가를 가파르게 올릴 수 있다는 주장의 설득력은 다소 약화될 소지. 기업이 적극적으로 가격 인상에 나서지 못하는 이유는 소비 감소를 우려하기 때문인데, 실제로 가계의 실질 가처분 소득 증가율은 정체 수준인 것으로 추정(Bloomberg Economics)
- 한편, 관세가 인플레이션을 장기간 높일 것으로 예상하며 금리 동결을 주장하는 연준 위원들은 딜레마에 직면할 전망. 이를 감안할 경우 높은 수준의 9월 금리인하 기대가 지속될 가능성이 크지만, 7월 CPI에서 관세의 인플레이션 영향이 상당한 것으로 확인되면, 금리인하 기대가 약화될 수 있음을 유념할 필요

글로벌 동향 및 이슈

■ 연준 보우먼 부의장, 연내 3회 금리인하 지지. 고용 악화 대비한 선제적 대응 필요

- 보우먼 부의장은 연내 3회의 금리인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갖고 있으며, 최근 발표되고 있는 노동시장 지표들은 이러한 견해를 강화한다고 발언. 특히 고용 악화를 대비하여 선제적인 통화정책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언급. 한편, 관세로 인한 가격 인상 영향은 일회적 현상일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
- 한편 뉴욕 연은 조사에 따르면, 7월의 1년 후 소비자 기대 인플레이션은 올랐고(3.0%→3.1%), 5년 후 소비자 기대 인플레이션도 상승(2.6%→2.9%). 이러한 변화는 관세가 인플레이션을 높일 수 있다는 전망이 반영된 것으로 평가

■ JPMorgan, 연준의 9월 금리인하 예상. BofA는 미국 주가의 과도한 상승을 경계

- JPMorgan의 마이클 페로리 애널리스트는 노동시장 악화 등을 감안하여 연준이 9월에 0.25%p의 금리인하에 나설 것으로 전망. 또한 9월부터 내년까지 4회의 금리인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 한편, BofA의 마이클 하트넷 스트래티지스트는 투자자들이 '골디락스'에 베팅하여 미국 주가가 상승하고 있으나, 최근 증시에서 거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

■ 미국 트럼프, 법원에 관세정책 용인 압박. 7월 세계식량가격지수는 29개월래 최고

- 트럼프 대통령은 법원이 법률을 어긴다며 자신의 관세정책을 중단시키면 국가 전체가 위기에 빠질 것이라고 경고. 현재 항소법원은 관세정책의 합법 여부를 판단 중. 한편, 7월 세계식량가격지수는 130.1로 전월비 1.6% 올라 2년 5개월 만에 최고치 기록. 특히 육류 및 유지류 부문의 가격이 큰 폭 상승

■ 중국 7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예상치 상회. 디플레이션 우려는 여전

- 7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월비 보합을 나타내 예상치(-0.1%) 상회. 이는 당국의 경기부양 노력으로 디플레이션 압력이 다소 약화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 다만, 소비 수요가 취약하여 디플레이션 압력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 이를 벗어나는데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 러시아에 대한 영토 양보는 절대 불가

- 젤렌스키 대통령은 점령자에게 땅을 선물로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 이는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평화 협정을 위해 양국의 영토 맞교환을 제안했다는 보도를 고려한 것으로 추정. 양국의 영토 맞교환은 결과적으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자국의 일부 영토를 양도해야 한다는 의미
- 8/15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만나 러-우 전쟁의 종식을 목표로 휴전 합의를 도모할 방침. 독일과 프랑스 등 유럽 주요국 정상은 러시아에 대한 압박을 유지하고, 우크라이나 및 유럽의 이익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

주요 경제지표

■ 주요 경제 이벤트(8/11일 현지시각 기준)

- 이탈리아 7월 소비자물가, 중국 7월 해외직접투자

해외시각 및 외신평가

■ 미국 증시와 채권시장, 경기침체 가능성 관련 현격한 시각 차이 존재 - 블룸버그

(Risk-Obsessed Wall Street Traders Tune Out Macro Angst - Again)

- 최근 팬데믹 이후 최악의 고용지표로 경기침체 불안감 심화. 채권시장에서는 급격한 경기침체 시나리오가 가격에 반영. 반면, 증시에서는 하락 이후 단기간 내에 상승세를 회복하는 등 위험자산 선호가 유지되고 있는데, 이는 경기침체 가능성을 낮게 평가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
- 이처럼 향후 경기침체 전망 관련 의견이 분분. 다만 일부에서는 그 동안 채권시장이 경제성장 위험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했고, 대부분 올바른 판단을 내렸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JP Morgan). 또한 주가가 높은 상황에서의 장기 금리 하락은 향후 증시 약세의 신호일 수 있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고 주장(Miller Tabak+)

■ 미국 회사채 시장의 고평가 국면, 고용 둔화인플레이션 등의 위험 대비할 필요 - 블룸버그

(Everything's Expensive. There's Nowhere to Hide)

- 최근 높은 신용등급의 회사채 시장에 대규모 자금이 유입되면서 해당 회사채의 밸류에이션은 높은 수준 유지. 동시에 정크 본드의 스프레드 변동성 또한 팬데믹 발생 직전 이후 최저치를 기록. 이에 미국 신용시장 투자자들은 위험 대비 낮은 수익률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직면(Insight Investment)
- 하지만 최근 3개월 급격히 둔화된 일자리 증가율과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 및 경제활동 둔화 우려 등이 위험 요인으로 부상. 이에 회사채 중심 투자자들은 현금, 국채 등 방어적 자산 비중 확대 검토가 요구(M&G)

■ 미국 기업의 암호화폐 투자 확대, 견실한 재무구조 유지가 중요 - Financial Times

(Why struggling companies are loading up on bitcoin)

- 트럼프 취임 후 당국의 디지털 자산산업 지원이 확대되는 가운데, 기업의 암호화폐 매입을 주요 전략으로 채택하는 기업이 급증. 이는 기업이 암호화폐 매수 시 투자자의 관심과 주가 상승의 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 다만 일부에서는 기업이 과도하게 웹기반 중심으로 전환했던 닷컴버블 시기의 모습이 재현될 수 있다고 우려
- 암호화폐 가격 폭락 시 관련 기업은 투자손실 급증 및 주가 하락 등으로 부채위기를 심화시킬 수 있기 때문. 더 나아가 암호화폐 시장 전체가 붕괴되는 단초가 될 가능성도 존재. 이에 기업은 견실한 재무구조 유지에 집중할 필요

■ 미국 노동통계국 고용보고서, 부정확한 통계로 시장 왜곡 초래 - Financial Times

(I'm with Trump: US payrolls data is pure BLS)

- 노동통계국(BLS)의 고용보고서는 시장의 큰 주목을 받지만 신뢰성에 문제가 있으며, 이 점에서 트럼프의 BLS 국장 해임에 일부 동의. 고용 통계는 불완전한 표본조사에 기반을 둔 '추정치'이고, '취업자'가 아닌 '일자리 수'를 집계하기에 이종으로 계산하는 가능성도 존재
- 가장 큰 문제는 예비치와 수정치 간 괴리와 이에 따른 시장 반응의 왜곡. 종종 수정 폭이 전망치의 양극단 간 격차보다 큰 경우도 있지만, 투자자의 최신 결과 편향으로 시장이 수정치 발표에 주목하거나 가격이 되돌려지는 경우는 제한적
- BLS가 수정치 데이터를 숨기는 것은 아니지만, 불필요한 시장의 과민 반응과 왜곡을 줄려면 차라리 시차가 있더라도 두 번의 추정치 발표는 폐기하고 최종치만 발표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

■ 미국 트럼프, 금리인하를 위한 토대 마련.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심화될 소지 - 블룸버그

(Trump Eases Way for Lower Rates as Stagflation Talk Picks Up)

■ 미국의 AI 활용에 따른 경제 성장 기대, 재정부채 극복의 청신호일 가능성 - Financial Times

(Could AI help America out of its debt hole?)

■ 미국 트럼프의 연준 인사 결정, 정치가 아닌 경제가 우선 고려될 필요 - 블룸버그

(The Fed needs economists who aren't politicians)

■ 전 세계 기업의 공급망 재검토, 미국의 트럼프 관세 등으로 가중 - Financial Times

(Trump's tariffs pile pressure on companies to review supply chai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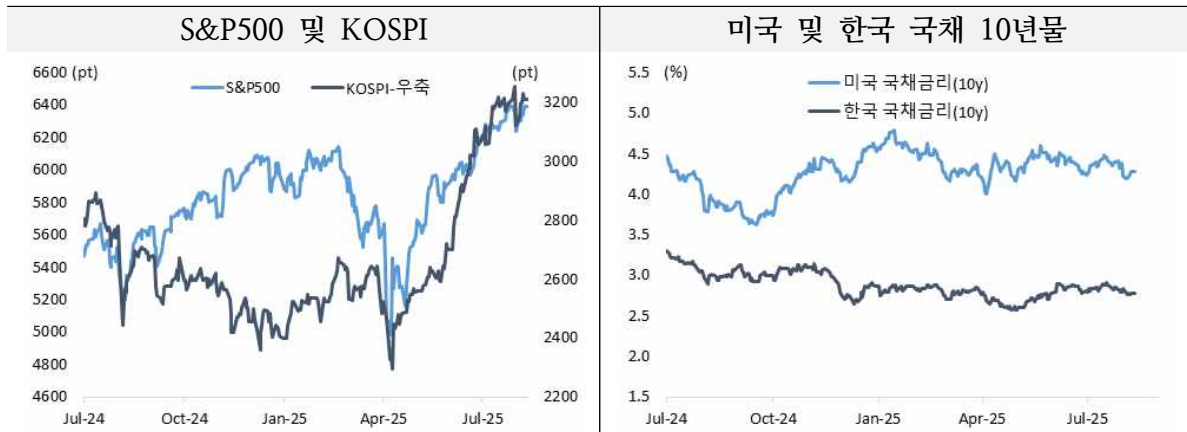
■ 신흥시장 투자자, 연준 금리인하 기대로 통화 캐리트레이드 점차 확대 - 블룸버그

(Carry Traders Ramp Up Bets in Emerging Markets as Fed Cuts Lo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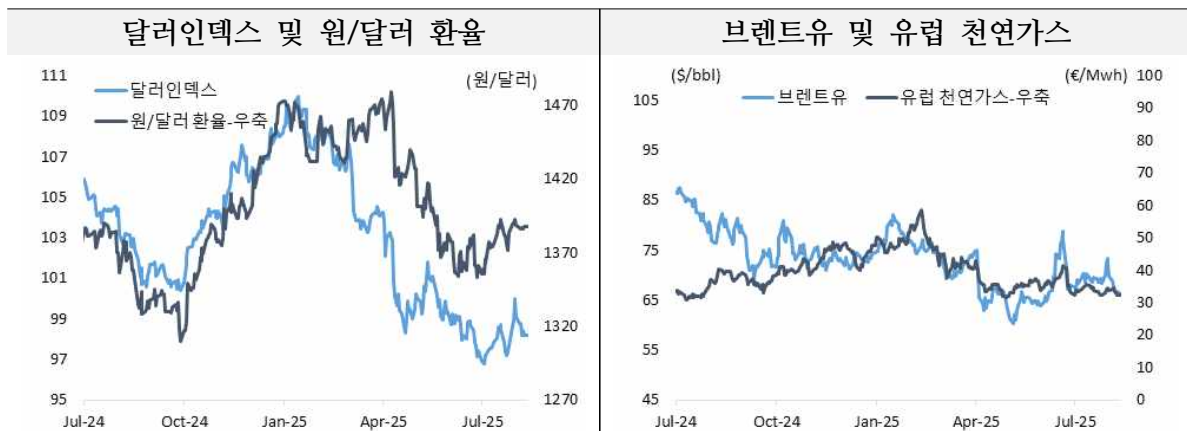
■ 사상 최고치의 육류 가격, 글로벌 식량 인플레이션 우려 초래할 가능성 - 블룸버그

(Record Meat Prices Fuel Fresh Worries for Food Infl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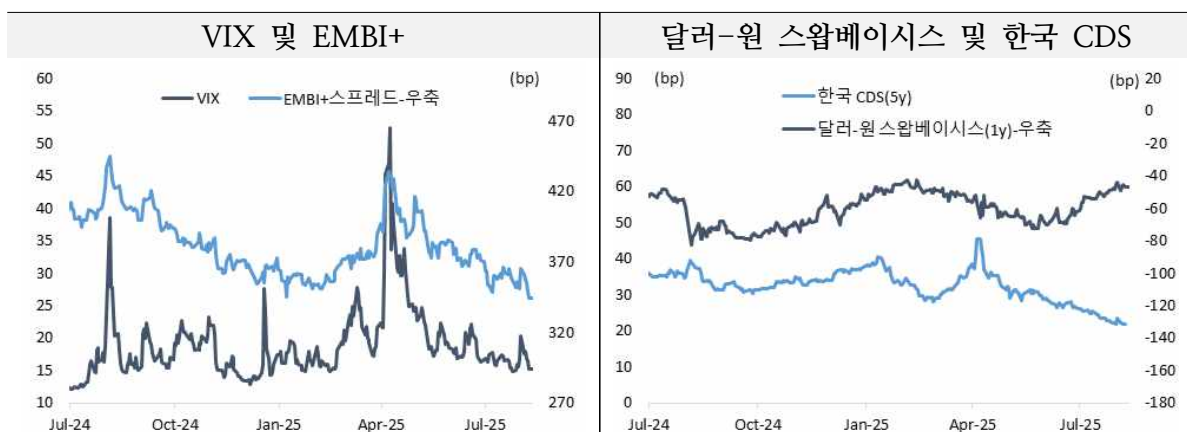
금융시장 주요 지표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문의: 02-3705-6172, E-mail jsjeong@kcif.or.kr